

# 흡연, 성기능 장애 주범중 하나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발생... 청소년 금연교육 절실

**영** 화, '원초적 본능'에서 샤론스톤이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치마와 늘씬한 다리로 포개고 앉아서 빨간 립스틱의 입술에 시가를 문 채로 담배연기를 "휴" 하고 내 뿜는 모습은 남성들에게는 정말로 섹시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샤론스톤이 성기능장애 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할 것이다.

최근 남성흡연자인 경우에, 발기부전 가능성이 두배 이상 높아지고, 심지어는 발기부전증인 경우에, 최근 가장 효과 있는 비아그라 조차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비아그라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흡연자가 91%라는 보고도 있다.

앞으로는 담배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강력한 유해 인자로 밝혀지고 있어서 담배 피우는 배우의 모습이 섹시한 모습으로 연출되기는 힘들 것이다.

오래 전부터 구미나 유럽지역에서는 담배가 남성과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배갑에 적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성기가 성적으로 흥분한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압축된 혈액이 성기의 동맥을 통하여 흐른다. 그렇게 되면 성기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이 상대적으로 닫혀져서 성기로부터 혈류가 정맥을 통하여 나가지 못한다. 남자인 경우에 발기를 유

발하고, 여성인 경우에 클리토리스 발기와 질에 분비물이 흥건해지는 것이다.

흡연은 이러한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남성인 경우에 발기지속력이 떨어

지고, 여성인 경우에도, 질분비물이 적어지며 쾌경기가 빨리와서 오르기증 장애가 온다. 실제로 비아그라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흡연자 발기부전증 환자에서 음경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음경해면체의 혈관분포가 현격하게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음경 해면체의 섬유화를 유발하여 음경이 휘어져서 발기가 되어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흡연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해하는 가장 유력한 인자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담배갑에 표시된 경고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며 암이나 심장병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아 그 전에 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얼마전 폐암으로 작고한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금연합시다" 라고 절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금연 캠페인이 무엇일까?

흡연은 폐암보다 훨씬 전에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20- 30대의 인생의 전성기에 성기능 장애로 고민하여 젊은 에너지를 손실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다.

실제로 젊은 청소년흡연자들이 20~30대가 되었을 때 성기능 장애로 비뇨기과에 노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30~40대에 사랑하는 애인을 담배연기에 사라지게 하는 실수를 범하길 않길 바란다.



박천진  
강남 J(제이) 비뇨기과원장  
www.penisdoctor.co.kr